

大學教育의 課題



慶尙大 總長 申 鉉 千

이제 우리의 대학교육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었다. 통신 대학과 개방 대학까지를 포함한다면, '85 년도의 문교 통계에 나타난 대학생 총수는 무려 1,455,759 명이나 된다. 이것은 '75 년의 대학생 총수 255,817 명의 5.7 배에 해당되고, '65 년의 118,477 명에 비하여는 12 배 이상 늘어난 수자이다.

새로운 知識과 첨단의 技術, 합리적 판단력과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고급의 人力을 최대한으로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영토는 좁고 賦存資源이 부족하면서 人口는 넘쳐나는 우리의 처지로 보아, 국력을 증대하여 조국 先進化를 성취하는 最善의 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 년 사이 대학교육이 급격히 보급된 것은 우리의 현실적 요청에 副應한 것이요, 교육을 통하여 부된 사회를 이룩하고 국제 경쟁력을 드높임으로써 先進祖國을 실현하겠다는 意志의 결과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지난 20 년 동안의 대학교육 擴大가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産業과 經濟의 지속적 성장, 藝術과 文化에 은연한 활기의 原動力이 되어 있다는 점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학교육의 급격한 膨脹은 무시할 수 없는 副作用과 課題를 유발·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否定的 課題들이 단순한 處方으로 간단히 解消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實相을 우리가 共同的으로 확인하고 인식하는 일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듯하다.

우리의 國力이 신장되고 國際競争力이 향상되면 될수록 경쟁 對象들은 자연히 보다 強力한 先進國들로 압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教育的 質이 더욱 高度化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 대학교육의 量的 팽창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그 質的 低下를 초래하여 왔다.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질이 걱정스러운 정도까지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大學인들이 共感할 것으로 생각한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현재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5.7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65년의 19.9명이나 '75년의 20.7명보다 월등히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의 장서수를 보더라도 학생 1명당 15.9권에 불과한데 이것은 '75년의 30.7권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학급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전국 대학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65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국민학교의 47.2명, 중학교의 63.2명, 고등학교의 58.7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다. 이런 산술적 통계 수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식과 技術 開發이 대학의 연구실이나 실험실 혹은 연구소로부터 創出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이외의 各種 기관이나 기업체 연구소들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現實도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하나의 傍證이 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우리의 憂慮를 加重시키는 課題는 최근 대학 사회에 번지고 있는 급진 좌경 사상과 理念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극소수 철없는 학생들의 일시적 불장난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深刻한 대학교육의 赤信號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有毒한 理念의 씨앗 하나가 知識人 社會에서 소리 없이 養成되어 급기야는 전체 사회의 조적을 붕괴시키고 만 사례를 우리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적잖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은 극히 제한된 一角에 머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급진 좌경 이념에 대하여는 대학의 主體인 교수들이 外面하거나 傍觀할 階梯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런 성질의 것은 物理的 힘이나 제도로써는 根源的 치유가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教育的 場內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소화시키고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들의 보다 적극적인 教育的 指導가 要될된다고 하겠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이 학교 교육에 크게 달려 있고 특히 대학교육 如何에 따라 左右될 수 있다는 사실을 否認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大學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이 內外的 課題를 지혜롭게 解消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공동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